



태광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동참

7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과 페퍼저축은행 시퍼퍼스 배구단의 홈 개막전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태광그룹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흥국생명핑크스파이더스 여자배구단의 김연경 선수(왼쪽)와 엘레나 므라제노비치가 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태광그룹



대중기협력재단, 14개 기업·기관과 포항에 물품 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2억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포항 '한남노'로 피해입은 포항시에 전달했다. 7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제일사료, 현대오토버, 이마트 등 총 14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왼쪽부터)한국환경공단 이진욱 부장, 대중기협력재단 조태용 본부장, 포항시 이강덕 시장, 제일사료 허준열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광동제약, '사내 대화용컵 사용 캠페인' 진행

광동제약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7일 밝혔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ESG 경영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본사를 시작으로 R&D연구소, 물류센터, 공장 등 전사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동제약

인사

◆코오롱그룹 (주)코오롱 임원승진 △전무 안상현 △무보설성현 오범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임원승진 △부사장 이범한 △전무 변재명 조항집 △상무 김수현 나승태 노수용 이연준 이정준 전용주 정일 조은정 △상무부 김경태 김의수 송광선 이광식 조세현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임원승진 △부사장 송승희 한경애 △상무 박성철 이지은 김정훈 △상무부 김수정 박재현 홍성택 ◇코오롱글로벌 임원승진 △부사장 박문희 △상무 류재익 △상무부 이영찬 정희봉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임원승진 △상무부 김휘규 ◇코오롱글로벌 임원승진 △상무 박순안 정덕용 △상무부 류광택 ◇코오롱플라스틱 임원승진 △부사장 김민태 △상무 이도근 △상무부 정홍영 최진상 ◇코오롱비엔티 임원승진 △상무 전선규 △상무부 정상섭 정주영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승진 △상무부 조정 △상무 문명환 △상무부 허진영 ◇코오롱오토모티브 임원승진 △상무부 한우준 ◇코오롱아우토 임원승진 △상무부 전태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전보 △상무 김종하 △상무부 이인성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권통일 △장관정책보좌관 황보은 △부총리차문관 박승재 △장관 비서실장 송근현 △장관실 서기관 구본익 △장관실 행정사무관 김규환 △장관실 행정사무관 한승우 △장관실 행정서기 박수빈 △장관정책보좌관실 사무운영서기 김선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강동훈

부음

▲안영자씨 별세, 구창림(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 7일 오전 4시15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국화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43-298-9100
▲이병호(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공과대학장)씨 별세, 조민경씨 남편상, 이지현·이지우씨 부친상 =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2-2072-2011
▲최기병씨 별세, 최규서(주케이엔에스 대표)씨 부친상 = 7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1-780-6170

김준 SK이노 부회장, 아프리카서 부산엑스포 홍보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방문 기후위기 등 과제 논의기회 강조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이 아프리카를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7일 SK이노베이션은 김준 부회장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유럽 다음으로 많은 45개국의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SK그룹을 대표해 참석 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을 찾았다. 각 방문에는 주카메룬 김중환 대사(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겸임)와 주콩고 민주공화국 조재철 대사로도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활동에 힘을



(왼쪽부터)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포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에서 면담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보탤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포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era) 대통령과 실비 바이포 테몽(Sylvie Baipo Temon) 외교부 장관, 레아 코야숨 돔타(Lea Koyassoum Doumta) 상무

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2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프 루툰둘라(Christophe Lutundula) 외교부 장관과 장 루시앙 부사(Jean-Lucien Bussa) 대외무역부 장관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의의를 설

명하고, SK그룹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부산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기획됐다"며 "기후위기, 질병, 불평등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엑스포라는 플랫폼에서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각국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나라와 대한민국 및 SK그룹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이들의 상상 속 미래차는 어떤 모습일까?

'현대 키즈 모터쇼' 접수 시작 수상작, 내년 어린이날 전후 전시

"아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일까?" 현대자동차가 아이들의 시각에서 답이 난 미래 모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 '제7회 현대 키즈 모터쇼'의 온라인 접수를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한다

7일 밝혔다. '현대 키즈 모터쇼'는 2016년 세계 최초 어린이 상상력 모터쇼란 타이틀로 시작해 매해 작품 공모수, 전시 방문객 수 등 관심이 증가하는 현대차의 대표적 성장 세대 대상 캠페인이다.

올해 주제는 '상상 속 미래 모빌리티를 그려주세요!'로 진행되며, 공모전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



제4회 키즈모터쇼 특별상 수상작 양윤서 어린이의 "소리에너지자동차"

즉 '미래 모빌리티'를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비 심사로 본선 진출작 150점을 선정 후, 추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부문으로 '교육부장관상 3점, 현대차 대표이사상 3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 기준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일반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S일렉트릭, 신안군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만든다

한수원·글로벌·신안군 등과 단지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LS일렉트릭이 도서 지역에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든다.

LS일렉트릭은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 신안군 등과 '도서 탄소 중립 이행 및 전력망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모델 및 단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진행 할 계획이다. 신안군 내 단독 계통 도서지



김중우 LS일렉트릭 사장(오른쪽 두번째), 박우량 신안군수(왼쪽 세번째),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역의 내연발전기(디젤)와 연계한 신재생 복합 발전단지(태양광+풍력+사용후배터리+염분차·담수화)를 실증을 우선 실시하고, 전기와 수소를 양방향으로 생산이 가능한 100MW

급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그린수소+사용후배터리)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염분차 등 해양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김재용 기자 juk@



bhc치킨 이문점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순살치킨 10세트를 기부했다. /bhc치킨

bhc치킨 이문점 취약층 아이들에게 치킨 10세트 후원

bhc치킨 가맹점들의 자발적인 치킨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bhc치킨 이문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순살치킨 10세트를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bhc치킨 이문점 대표는 "치킨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을 하면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문2동 희망복지위원회를 찾았다.

손승현 이문2동장은 "관내 아동들에게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아이가 치킨을 좋아해도 가격이 부담되어 사주기가 어려운 가정이었을텐데 사장님의 따뜻한 후원으로 한 가족 모두가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bhc치킨 이문점 대표는 "아이들이 맛있게 치킨을 먹고 이웃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